

윤 대통령, "K라이스벨트 지속 확대, 기후 대응 적극 참여할 것"

G7정상회의 확대세션...국제사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연이어 참석해 국제사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와 관련된 제1, 제2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G7과 연대·협력해 취약국과 개도국을 지원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고 대통령실 최상욱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농업과 식량, 바이오와 헬스, 기후와 녹색기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발언했다. 먼저, G7 확대 정상회의의 핵심 협력 의제인 농업·식량 분야 협력과 관련해 대통령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은 우리의 경험을 언급하며,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개도국 식량원조 확대 계획을 내놔다.

우리나라는 UN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한 2018년부터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식량위험국가에 매년 5만 톤의 쌀을 원조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 규모를 두 배 확대해 매년 10만 톤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에 구축 중인 'K-라이스 벨트' 협력 국가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K-라이스 벨트는 한국의 쌀 자급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에 전수하기 위해 쌀 종자와 재배기술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부해안에서 동부해안까지 K-라이스 벨트를 구축해 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에 세네갈, 카메

룬, 우간다 등 6개국에서 시범사업을 개시했으며, 내년부터는 케냐를 포함해 7개국 이상으로 협력 국가를 지속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경제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분야 국제교류 강화의 뜻도 밝혔다.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세균 자체보다도 인류의 건강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글로벌 보건 격차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야만 미래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감염병 백신 연구 개발에 올해 2400만 달러 신규 공여 그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감염병 혁신연합'에 2400만 달러를 올해 신규 공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3년동안 1년에 300만 달러씩 기여해 왔는데 올해 한해 2400만 달러를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8배를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의 건강보험 개혁 과정도 소개하면서 개도국의 보편적 의료 보장, 즉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확대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한국이 개도국 시기에 도입하여 빠르게 정착시킨 건강보험제도는 모범적인 UHC의 사례"라며 "정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에 제도 설계와 시행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국제보건기구재단을 통해 아시아 8개국, 아프리카 5개국에 시행하고 있는 보건외교 개발협력사업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와 녹색기술에 관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 의제



에 대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G7의 노력에 적극 보조를 맞춰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G7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저탄소 신산업 육성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기후클럽은 2021년에 독일이 제안하고, 지난해 G7 정상회의에서 창설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최 경제수석은 "정부는 기후클럽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역내 '수소 협력플랫폼' 구축 제안

윤 대통령은 또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주기에 걸친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수소 협력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의 성안을 위해서 2024 하반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태호 1차장은 "이는 환경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기후와 녹색성장 분야의 개발 협력에 유리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점을 들어, 그린 ODA의 확대도 강조했다.

최 경제수석은 "우리는 민동산을 기적적으로 녹화시킨 경험이 있고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기후·녹색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혁신적 녹색기술을 공유하고 관련 ODA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최 수석은 "기후변화협약상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에 역사적 책임이 없는 개도국 그룹에 포함돼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공여 의무가 없지만, 지금까지 총 3억 달러를 약정해 11위 수준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논의되는 2차 재원보충에도 적극 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이 개도국 녹색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2차 재원 보충도 1차 재원보충 규모인 100억 달러 이상 확충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질병관리청,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시원하게 지내기**
 - ☑ 샤워 자주 하기
 - ☑ 양모하고 시원한 옷(색깔 옷 벗기)
 - ☑ 체온 시뮬레이션 차등(정온도 유지)
- 물 자주 마시기**
 -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 '당뇨병'은 최대 위험 수험
-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 가장 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야외적인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 '산열'은 최대 위험 수험
- 매일 기온 확인하기**
 - ☑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온열질환은 작은 실선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ODA

경북도,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 첫발 내딛다

한수원 투자 경북형 산단 지붕태양광 프로젝트 1·2·3호 동시 착공

경북도는 22일 영천 화산농공단지에 위치한 거평그린에서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 장필호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사업본부장,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경북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단 태양광'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14일 도청 K창에서 지역 공기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투자·지원 협약 체결 후 열린 첫 착공식이다.

이번 사업은 경북 산업단지 산업시설면적(8,215ha)중 30%에 해당하는 유휴 공간(지붕 등)에 2.5G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산단 기업주에게 새로운 소득과 기후변화 규제(RE-100)에 대응한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공관리는 지역기업의 100% 참여로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영천, 구미, 경산 3개소에서 1,380kw정도를 동시에 착공하는 산단 지붕태양광 프로젝트는 경북도와 함께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시군 투자유치부서 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를 홍보한 성과인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제1호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기업은 영천 화산농공단에 소재한 인조잔디 제조·시공업체인 거평그린으로 공장지붕(6,745㎡)에 712.8kW를 설치한다.

한수원으로부터 20년 동안 연간 2천8백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다. 최초 10년간 선금 2억8천만원 정도를 미리 지급 받는다.

제2호 기업은 1972년 창사한 구미 장수기업으로 공단동에 소재한 자동차 범퍼, 플라스틱 제조사인 대명산업사로 태양광 391kW를, 마지막 제3호는 경산 진랑읍에 소재한 문구완구 도소매업체인 팔팔은유어완트로 태양광 276kW를 설치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 동시

착공에 참여할 각 기업주들은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대 전환 정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향후에도 협약한 공기기업 등과 함께 전담조직(원스톱지원단)을 운영해 사업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참여기업 에너지 진단 및 절약, 근로자 복지 등 지역상생을 위한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형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에너지 대 전환의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라며,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단 단지를 신속히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정의 달 기념으로 비만 예방을 통한 가정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85개 시도청 및 보건소와 함께 하는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기획됐다. 또한, 비만 예방 슬로건인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주제

로 일상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누구나 쉽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대국민 참여형 걷기 캠페인을 운영한다. 걷기 캠페인은 5월 22일(월)부터 6월 21일(수)까지 한 달간 총 15만 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진행되며, 기간 내 총 걸음 수 15만 보 달성자 중 200명을 추첨해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 캠페인 참여 지자체에서도 워크온 및 자체 개발 앱 등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캠페인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비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캠페인 운영 등 자세한 내용은 5월 22일(월) 비만 예방 캠페인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지아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강원도의회,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국회 통과 촉구 결의

강원도의회는 5월 22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강원도의회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정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간 소모적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 지속되면서 법안심사도 이뤄지지 않아 출

범 전 통과가 불투명한 절박한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도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출범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5월내에 강원특별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권혁열 의장은 "300만 강원도민이 열망해온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5월 중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가 대승적·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라면서, "'강원특별법'의 조속하고 완전한 통과를 위해 강원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상경 시위 등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원형/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2023년 전체연수 실시

고양특례시의회가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전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지식 습득과 소통을 통한 의회 및 고양시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첫날에는 전문 강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소통

과 화합 특강 총 3개의 강기가, 저녁 식사 이후 이어진 의정 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토론회와 발표는 밤 9시가 넘는 시간까지 진행됐다.

이튿날인 19일에는 오전 9시부터 의원들의 전문 지식 나눔을 위한 자체 강의를 실시했다. 신현철 의원은 '디지털과 영상', 송규근 의원은 '의정 생활을 스마트하게 해주는 기초 사회연구 방법 이해' 강의를 진행하여 의원과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오후에는 아침고요수목

원을 방문하여 관광문화 벤치마킹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식 의장은 "이번 연수에서는 6월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원들의 의정 역량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등 강의와 토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앞으로도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고양특례시 의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영기/기자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 연구 착수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 조용진 의원)는 지난 19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대표인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은 평소 어린이(영유아)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김천을 비롯한 도내 중소도시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5개 지역(포항, 경주, 안동, 경산)의 의원과 협력하여 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를 제안하게 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호 교수팀이 진행하며 약 3개월 동안의 연구를 통해 각급 의료기관의 어린이 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일본·미국과의 어린이 의료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경북형 어린이 홈 헬스(In home care/Home health) 모델'을 제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착수보고회에서 이기호 교수는



연구 방향 브리핑을 통해 "선진국에서는 원격진진 시스템, 홈 헬스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다."라며 "경북 5개 도시 의료기관의 현황분석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과 경북의 특색을 반영한 개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연구 방향과 목표를 설명했다.

조용진 의원은 "어린이 의료정책은 우리 경북의 미래가 달린 문제

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선진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 달라."고 제언했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하여 조용진 의원은 오는 6월 1일 김천시립울곡도서관 울곡홀에서 '경북형 어린이 서비스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5·18정신 계승 행보 이어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릴레이 참여 등으로 5·18정신 계승 의미 더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하여 5·18정신을 계승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실시한 5·18민주화운동 특강에 이어 이번에는 창작뮤지컬 '광주' 공연을 관람했다.

뮤지컬 '광주'는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으로 제작되어 현재 4시즌째 상연 중이다. 이 공연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광주를 평화의 땅으로 일궈낸 열사들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 당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보여준다.

서구의원들은 공연 시작 전 빛고을문화관 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기 릴레이에 참여하여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의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고경애 의장은 이번 공연에 대해 "광주 시민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을 뮤지컬로 만나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그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서

구의회는 항상 5·18정신을 마음속에 지니고 민주적인 의정활동에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병수/기자

광명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개최

광명시의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24일

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다음달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1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안성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는



윤용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명인 | 발행인: 최수진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편집: 박유석, 임석경 |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 등록일 2013-07-12 |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 제 부: 대전 (114)	경 제 부: 대전 (115)
광고국: 1899.9659	경 제 부: 대전 (112)	경 제 부: 대전 (113)
	경 제 부: 대전 (117)	경 제 부: 대전 (118)
	경 제 부: 대전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트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 함께해요 행복출산, 같이해요 든든육아 ”

우리를 위한 선택! 선택을 돕는 지원! 경상북도가 행복을 키워줍니다

<p>결혼·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1인 1,060만원) ·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 청춘남녀 만남지원 ·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 	<p>임신·출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소득 불문)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 다자녀가구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p>돌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전 계층(0~5세) 무상보육 · 국공립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초등학교 마을돌봄터 운영 ·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부담 경감(90~100%)
--	---	---

금천구, 최태성 강사 초청 '금천인문학당' 역사 특강 개최

'별거벗은 한국어' 등 한국사 일타강사로 유명한 최태성 강사 명사 특강



금천구는 5월 17일 오후 7시 금나래아트홀에서 한국사 대표 강사 '큰 별쌤' 최태성 강사를 초청해 '금천인문학당' 역사 특강을 개최했다. '금천인문학당'은 금천구의 대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상, 하반기에 명사초청 특강, 정규 인문학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태성 강사는 EBS, 이투스 등에서 한국사 일타강사로 유명하며, tvN '별거벗은 한국어', KBS 1TV '역사 저널 그날' 등에 출연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하고 있다. 금나래아트홀에서 진행된 강연

은 '정조의 행행(幸幸)과 시흥'이라는 주제로, 정조의 화성 행차 여정과 그 과정에서 시흥행궁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강연에는 400여 명의 구민 등이 참석해 금천구의 역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금천인문학당'을 통해 깊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황신/기자

서대문구, 이대역 인근 대현문화공원으로 5월의 소풍 오세요

서대문구 '플라잉 테이블 3.5.7 페스티벌'..거리 공연, 마술쇼, 벚룩시장 등 열려

서대문구는 이달 26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지하철 이대역 인근 대현문화공원 일대에서 '플라잉 테이블 3.5.7 FESTIVAL'이 열린다고 밝혔다.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과 시민 간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이날 행사는 '이화여대3.5.7길 상인회'가 주최하고 서대문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화여자대학교가 후원한다. 거리 공연, 관객과 함께하는 마술쇼, 벚룩시장, 개인 맞춤형 색(퍼스널 컬러) 진단, 캐리커처 엽서 제작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가정의 달 많은 분들이 페스티벌에 찾아주시길 기대하며 되살아나는 이대 앞 거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올 들어 ▲이대 앞 상권 업종 제한 폐지 ▲신촌이대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신촌이대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시행 등 장기간 침체돼 온 이대 앞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만식/기자

금천구, 동네방네 고추장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독산보건분소와 박미보 건지소에서 6월부터 '동네방네 고추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네방네 고추장 만들기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독산보건분소에서는 6월 1일을 시작으로 총 200명 대상 9회, 박미보건지소에서는 6월 14일부터 총 100명 대상 6회 각각 1시간씩 진행해 전통 고추장 만들기 비법을 전수 할 예정이다. 먼저 국산 발효 식품인 전통 고추장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한다. 교육 참여자는 본인이 직접 만든 고추장을 유리병에 담아 가져갈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동네방네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전통음식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식생활이 조금 더 건강하고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오세훈 시장, 서울에 새로운 책 읽는 문화 정착... 2023년 야외도서관 개장 3주 만에 12만명 방문

서울시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개장 3주 만에 방문객 12만 명 돌파하며 큰 인기

서울시가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 개장한 대규모 야외도서관 '광화문 책마당'과 '책 읽는 서울광장'에 개장 3주 만에 12만 명의 시민이 찾으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작년 처음 개장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명사로 떠오른 '책 읽는 서울광장'과 올해 처음, 광화문광장 실내외 공간에 조성된 '광화문 책마당'에 운영 3주 만에 각각 7만여 명과 5만여 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서울 야외도서관 인기 비결은 ▲개방성 ▲일상성 ▲독특성 에 있다. 먼저 탁 트인 야외공간에서 신선한 공기과 바람을 맞으며 독서를 하는 경험은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시민들에게 개방감을 준다. '광화문 책마당'의 경우 출퇴근길 도심 속 여정에서 책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해 시민들의 독서 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알록달록한 빈백에 누워 책을 읽는 경험, 빛나는 서가를 배경으로 야간 독서를 즐기는 경험, 책과 함께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는 경험 등 이전에는 없었던 신선한 경험들을 함께 제공하는 독특성이 시민들을 사로잡은 비결로 손꼽힌다.

한편, 4월 23일 개장 이후 총 31일 운영 결과, '책 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이 제공했던 1만 여권의 장서 중 분실도서는 단 17권에 불과했다. 전체 도서 대비 분실율 0.1% 수준으로 서울시의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서울야외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8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말에는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에 하루 평균 1만6천여 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시민 유형을 살펴보면 '엄마아빠 행복존' 등 가족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책 읽는 서울광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46.8%로 가장 많았고, '갯생(God+生)', '취향', '여유'를 키워드로 책 추천과 공간을 운영하는 '광화문 책마당'은 가족 이외에도 혼자 온 성인 방문객이 30.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46.8%는 '책 읽는 서울광장'을, 21.5%는 '광화문 책마당'을 방문했다고 답변했다. '책 읽는 서울광장'의 방문객 중 동반자는 가족 46.8%, 친구/연인 26.8%, 혼자 20%로 나타났으며, '광화문 책마당'은 가족 42%, 혼자 30.7%, 친구/연인 24.1%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31.7%는 '책 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을 모두 방문하여 야외에서 누리는 새로운 독서문화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두 곳의 야외도서관을 방문한 시민 중 88.56%는 '1권 이상' 책을 읽었다고 답변했고, 14%는 '3권 이상' 책을 읽었다고 답변하여 서울야외도서관의 시민들의 독서 경험 증대에 큰 기여를 했음이 확인됐다. 국민독서실태(2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50%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서울야외도서관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도심 한 가운데서 편하게 책을 접하게 하여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했음이 확인됐다. 특히 탁 트인 열린 공간에서 시원한 바람, 좋은 날씨와 함께하는 '개방성'이 시민들을 책 앞으로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광화문 책마당'의 실내 공간인 '광화문 라운지'와 '세종 라운지'는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도심 출퇴근길, 혹은 나들이 속에서 일상적으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평일에서 주말까지 상시 운영하여 3주간 1만여 명의 시민이 찾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도서관은 지난 5월 13일 '광화문 책마당'의 특별 이벤트로 'Saturday Night in 광화문 책마당'이라는 야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빛나는 한글서가를 배경으로 반딧불처럼 빛나는 '북라이트'를 밝혀 책을 읽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1만여 명의 시민이 찾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색다른 형식의 책 읽기를 제안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제

공한 것이다. 서울도서관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시범 운영했던 '야간 야외도서관 운영'을 여름 상시 프로그램으로 준비중이다. 6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독서와 함께하는 건전한 야간 문화와 실내 전력 소비량도 줄이는 '친환경' 밤독서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책 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의 인기로 힘입어 시민들이 '책과 함께하는 일상'에 더욱 가까워진 듯 하다"며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야간 책 읽기 등 다양한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은평구,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

태풍·호우 등 기상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서울 은평구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 태풍 등 기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구 활동을 위한 전담 기구다. 본부장은 구청장이고, 13개 분야 실무반(85명)과 16개 동수방단(379명)으로 구성해 수방대책기간 중 24시간 운영한다. 본부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강우량에 따라 평시,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은평구는 중산빌드룸프장, 하천과 대형공사장 등의 수방 시설과 수해 취약시설 770개소에 대한 풍수해 대비 점검과 정비를 완료했다. 기습폭우 대비한 하천 진출입차단시설과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긴급 상황 시 스마트기기를 이



용한 CCTV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 재난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침수 예보·경보제'를 시행한다. 예·경보 발령 시 통발장과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침수취약 가구 돌봄서비스 '동행파트너'도 실시한다. 침수 대비 대응 능력과 주민참여를 강화한 주민서포터즈 및 하천순찰단, 빗물받이 관리자 지정, 지역 자율방재단 등도 운영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기상이변에 의한 돌발성 폭우가 잦은 만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수방대책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송파구, 석촌호수서 '송파건강 워킹챌린지'... 900명 참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21일 석촌호수에서 시민 9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송파건강 워킹챌린지'는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걷기운동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인 건강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했다. 이를 위하여 구는 습관 형성 플랫폼 기업으로 유명한 '챌린저스(Challengers)'와 협업한다. 챌린저스는 코로나19 기간동안 앱을 통한 6시 기상미션 '미라클모닝'으로 자발적인 건강 습관을 유도해 널리 알려졌다. 참여자들은 5월 21일 오전 10시 석촌호수 2바퀴(5km) 걷기미션을 완료하고 챌린저스 앱에서 인증하면 된다. 인증에 성공하면 참가비 1만 원을 포인트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선크림 2종, 스마트 패치, 리우저를 팩 등 기념품도 제공한다. 더불어 ▲송파구 캐리터 '하하호호'와 함께 하는 포토존 ▲캘리그래피 ▲술사탕 코너 ▲력키 드로우 ▲롤릿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을 준비해 챌린지 참여자 외에 누구나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구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 강화, 운동강화 확대 등에 힘쓰고 있다. 스야의 운동기구 실내 점검과 관리 시스템 구축 △맨발로 걷는 황토길 조성 △구민체육대회 4년 만에 개최 △생활체육교실 시설 개선과 종목 다양화 등이 대표적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민선 8기 전략과제 중 하나로 '생활체육의 도시'를 선정하고 생활체육과 신설 후 관련 예산·정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식/기자

서초구 양재2동, 가족과 함께하는 '상상그리기 대회' 개최

서울 서초구 양재2동은 지난 20일 양재근린공원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480여명과 함께 '2023 양재2동 상상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양재2동 상상그리기 대회'는 양재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는 양재2동 대표 어린이 축제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예술성을 뽐내는 그림 그리기 대회와 함께 다양한 체험부스 등을 운영했다. 먼저 서초주니어오케스트라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공원 곳곳에 돛자리를 깔고 8절 도화지 위에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쳐며 그림을 완성했다. 행사장 주변으로는 페이스페인팅, 슈링클 열쇠고리 만들기, 전통의상 입기 체험, 자원순환가게, 플라마켓, 즉석사진 이벤트, 먹거리부스 등 각양각색의 부대행사를 운영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작품 시상식은 다음 달 중 사랑상,

행복상, 나눔상의 3개 부문으로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으로 나눠 개별 수여할 예정이며 동주민센터에서는 우수작품 전시회도 개최한다. 이보민 양재2동장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4년 만에 개최한 이번 상상그리기 대회가 우리 양재2동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용인문화재단, 피크닉 축제 2만1천여 명의 하루를 책임지다

'2023 피크닉 페스티벌 - We Go Together Concert' 성료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에서 개최한 용인시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피크닉 축제 '2023 피크닉 페스티벌 - We Go Together Concert'(피크닉 페스티벌)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2만 1천여 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문화예술매개자)가 운영한 문화예술 체험부스부터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이 담긴 에코백 및 파우치 만들기, AI 인공지능 체험 및 드론 날리기 등 이날 용인미르스타디움에 방문한 시민들이라면 무료로 20여 개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



과 함께하는 피크닉 그림그리기 대회'의 경우 추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보인 가족에게 용인시장상, 용인시의회 의장상,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상, 용인예총 회장상, 용인문화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으로 6월 중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용인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이번

'피크닉 페스티벌'은 하루 동안 주간 프로그램 1만 1천여 명, 야간 프로그램 1만여 명까지 총 2만 1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으며 용인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일상이 축제'가 되는 문화도시 용인'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성남시, 원도심 산성대로 일대 '라이프스타일 콤플렉스'로 재탄생

100억 투입 '성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심 속 휴식 문화공간 녹지형 보행광장 조성



성남시 원도심의 핵심 상권인 산성대로 일대가 라이프스타일 콤플렉스(복합문화상업공간)로 재탄생한다.

성남시는 시비 100억 원을 투입해 원도심의 주요 상권인 산성대로 일대를 상권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소비 트렌드에 따른 다양한 수요층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중앙지상가 주변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산성대로 도시재생 TF팀'을 구성했다. 'TF팀' 운영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가 자체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성대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두 단위 사업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산성대로 콤플렉스 사업으로 지하철 8호선 수전역에서 우린은행 사거리에 이르는 길이 1.3km, 폭 15~26m의 광장형 산책로인 녹지형 보행광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광장형 산책로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또 지하철 8호선과 간선급행버스체계인 S-BRT 등과 연계하는 이동

수단 편의성 극대화와 지하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지하도상가 접근성 개선사업이다. 이를 위해 캐노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신흥로데오거리엔 시민들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CCTV도 설치한다.

둘째는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으로 산성대로 상권 브랜딩 기획 및 마케팅 지원과 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성남시는 산성대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공청회와 시의회 등 주민들과 관련분야 의견을 수렴한 후, 올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산성대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 등 특색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성대로 일대를 라이프스타일 콤플렉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원도심은 1969년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서울시 철거민의 대규모 집단 이주로 형성된 지역이다. 분당 1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전통적인 중심 상권 역할을 했다. 그 후 분당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활력을 잃고 노후화된 환경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성윤/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스쿨존 사업설명회서 "학부모 의견 청취, 교통사고 제로화 실현"

하남시는 19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하남형 스쿨존' 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현재 시장은 처벌 강화만으로 스쿨존 내 사고 예방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부-하남-삼곡초등학교에서 하남형 스쿨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이 시장은 '하남+케어+스쿨존'을 슬로건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며 ▲취약지점 선정 및 개선 ▲주민 불편 최소화 ▲전문기관 기술검토 ▲어린이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행환경 및 교통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로 높이를 높여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보행환경체계를 보완하고, 소형 회전교차로 등을 도입해 교통

운영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과속방지턱 및 활주형 횡단보도(LED 유도 등이 매립된 횡단보도)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우회전 감속 보행자 안전 시스템 등 기타 교통사고 예방 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신호교차로 문제 해소 ▲어린이 보행 동선 불량 문제 해결 등 5건의 시민 의견이 제안됐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시민 의견에 대해 횡단보도가 눈에 잘 띄도록 표지등을 설치하고 장마 기간을 피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아이들은 성인과 비교해 인지능력이 미숙하고 도로 교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특별한 관

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시는 스쿨존 종합 개선대책을 바탕으로 노후화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보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사전 진행한 학부모 설문 결과와 이날 제안된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전문기관 기술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하남경찰서 협조로 동부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성수 경기도의원, 금광원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정규진 하남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송병훈 동부초등학교 교감, 전보경 동부초등학교 녹색 어머니회 회장, 류소연 동부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회장 등 학부모 및 지역 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박강호/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경제특례시 위해 현장 누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8일 김경래 아주대 부총장과 함께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의 R&D센터를 방문해 산·학·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말했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교육과 지식은 공유에 그 힘이 있지만, 기술의 힘은 차별화에서 나온다"며

"교육과 지식의 장인 대학이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는 기술과의 협력에 있다"고 밝혔다. 이의근 수원시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은 "기업 육성의 핵심 요소는 지역 대학 특화와 이를 통한 인력 양성"이라며 "수원의 대학들이 반도체 분야 특화와 같은 대학별 특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과 대학간의 일시적인 협업이 아닌 중앙정부, 수원시,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해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발전 방향과 지원책을 제시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기술분야 중심의 캠퍼스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 세계인의 날 기념 제7회 다문화축제-다(多)색(色)다(多)미(美) 성황리 개최



광명시는 지난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광명시민체육관 대리석 광장에서 8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7회 다문화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08년을 시작으로 올해 16회를 맞은 세계인의 날은 2007년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시는 이번 다문화 축제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맞춰 일상 회복의 하나로 다문화와 비(非)다문화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행사는 사물놀이 풍물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러시아, 중국, 베트남 전통춤과 노래를 선보였으며, 인디밴드인 북코밴드는 내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 이어 기념식에서는 다문화 유공자를 표창했으며, 세계 각국의 음식

식 및 전통놀이 체험 부스(24개)와 시민들이 각 나라의 독특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 사고파는 지구촌 프리마켓을 운영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듯한 다채로운 흥미와 재미를 선사했다.

그 밖에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과 시가 추진하는 가족사업 및 다문화 지원사업 홍보로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광명경찰서와 소방서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익숙해져 있지만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하나의 광명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안성시,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안성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안성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통)재난안전분야 재정투자계획 확대 실적 ▲(예방)감염병재난 저감 활동 실적 ▲(대비)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복구)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및 관리 실적 등 대부분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2022년에 이어 202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와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속해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재난관리평

가에서 2회 연속 안성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재난관리 역량은 더욱 강화하여 예

기지 못한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해 살기 좋은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조혜영/기자

오산시, '다하나 한마음 축제' 성황리에 개최



오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광장에서 다문화 가족을 비롯해 외국인 주민과 시민 등 모든 가족들이 어울려 소통하는 '다하나 한마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알렸다.

2011년 시작으로 11회를 맞은 이번 축제의 주제는 '우리가(家), 꽃 피는 지금'이었다. 꽃 한다발의 조화로움을 떠올리며 우리 가족들과 글로벌 시대 가족의 하나가 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작년보다 더 다채로워진 가족 참여 체험형 부스들이 운영됐으며, 이를 체험하기 위해 늘어난 시민 행렬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특히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된 전통 의상 가족 패션쇼와 가족사진 포토존 외에도 우리 가족 향수 만들기, 비즈

와이어 키링 만들기 등의 홍보부스는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광장 한 편에 마련된 진행된 전시 및 공연들은 재미와 볼거리를 더하고 축제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다하나 한마음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축제의 주제 '우리가(家), 꽃 피는 지금'을 되새기며 이 자리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이 되는, 뜻 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개최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하여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및 시·도 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양시현/기자

경기도, 카자흐스탄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도내 기업 710만 달러 수출상담 실적



도, 카자흐스탄 의료기기 전시회에 경기도 의료산업체 공동 홍보관 운영

경기도는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3 카자흐스탄 의료기기 전시회(Kazakhst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에 경기도 의료산업체 공동관을 구성하고 60건, 7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도가 공동관을 구성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 경기도 기업은 ㈜젬스헬스케어, ㈜미코바이오메드, ㈜에이스메디칼, ㈜제니스티, ㈜케어포유 등 5곳이다. 전시회를 찾은 중앙아시아 국가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제품 설명과 구매 의향 등을 타진했다.

200여 개 부스 규모의 카자흐스탄 의료기기 전시회는 의료기기, 진단기기, 연구소 장비, 응급 의료 장비, 의료소모품 수출입 관련해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다.

경기도는 이미 2013~2017년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해 경기도 공

동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코로나19 종료 이후 의료산업 해외 진출의 기반을 더 확고히 하고자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됐다.

카자흐스탄은 인구 1천900만의 국가로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신북방 국가이자 시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도내 의료기기 및 장비 수출도 활발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추진한 국제 의료사업을 기반으로 구축된 해외 정부와의 교류망을 활용해 의료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박람회·전시회 경기도 공동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간 중앙아시아 지역 지방 정부와 구축해 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정전협정 70주년 기념...파주시 2023 DMZ 평화걷기 개최

임진강 생태탐방로(9.1km)부터 평화열차(수원역~도라산역)까지 개최



파주시는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일 임진각 일원에서 'DMZ OPEN Festival'의 주요 행사인 '2023 DMZ 평화 걷기' 행사를 지원했다.

경기도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주한 외국대사, 도의회 의장단, 도민 등 1,400여 명이 참여해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진행됐다. DMZ 평화걷기 행사는 ▲DMZ 평화열차 ▲DMZ 평화걷기 ▲DMZ 평화음악회로 구성된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DMZ 평화열차는 '19.10월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중단된 DMZ관광 열차(코레일) 운영을 재개해 정전 70년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총 360명이 탑승하는 DMZ 평화열차는 수원역(09:08)에서 문산역을 거쳐 도라산역(11:50)까지 운행됐다. 앞으로는 6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1,3주 토요일) 평화열차가 운행될 예정으로 다음 달에 사전 예약 홈페이지가 공개된다.

DMZ 평화걷기는 45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DMZ의 생태를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진행됐다. 참가자

1,000여 명은 임진각을 출발해 통일대교, 예곡유지엄, 초평도 전망대를 거쳐 울곡습지공원 까지 이어지는 총 9.1km를 걸으며 DMZ 생태를 느끼고 체험했다.

또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된 DMZ 평화 음악회는 'DMZ OPEN Festival' 오프닝과 연계한 다채로운 공연(국악, 클래식, 밴드 등)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 3부로 나누어 진행된 음악회는 경기팝스 앙상블(팝스 오케스트라), 드림월드 앙상블(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청년 앙상블), 1군단 군악대, '명' 어린이합창단(키즈·창작 오페라 합창단) 등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파주시는 주요 농특산물 판매와 DMZ 생태관광을 홍보하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상징성은 분명 파주만의 고유한 관광 자원이며, 이를 확대해서 DMZ 생태 문화관광벨트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이천시 반도체 원팀, 특화단지 유치 총력 "반도체 특화단지 최적지는 이천"

이천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유치하고자, 18일 추진전략 평가 발표회에 참석해 이천시 특화 단지의 강점과 당위성에 대한 PT를 발표했다.

특히 SK하이닉스, 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과 함께 반도체 원팀으로 연계협력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초격차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반도체 선도 기술 전 초기지가 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이천시에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하여 다수의 우수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ASML TEL 등 세계 반도체 기업 한국사무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높은 기술력과 세라믹기술원의 연계 협력으로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라믹종합솔루션 센터에서 반도체용 소재 부품 생산

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장을 통한 연구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R&D 기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SK하이닉스의 자체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이천시만의 맞춤형 실무 인재양성을 통한 차세대 우수인력 육성하여 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등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뿐 아니라 정착기반 또한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천시는 각종 도로망·철도망 등 반도체 산업의 집적화에 유리하고, 교통의 요충지로 선도 기업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벨트를 형성하여 배후 단지를 조성하는 등 반도체 초기 시장 수요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SK하이닉스, 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과 함께 반



도체 원팀으로 힘을 합쳐 선도기업과 연구기관의 인프라, 인력 등으로 함께 연계 발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유치하겠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욱/기자

제18회 한미친선 한마음 축제에서 수도과 '평택의 물' 홍보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직원 20여 명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제18회 한미친선 한마음 축제 홍보부스에 참여해 '평택의 물'을 홍보했다.

홍보부스 운영은 직원 4~6인 1조로 구성해 12시 부스운영 준비를 시작으로 19시까지 평택시민 및 주한 미군 가족들에게 '평택의 물'을 제공하며 평택의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평택의 물'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인 진위천을 취수원으로 하는 송탄정수장에서 단계적인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된 물이다.

평택항, 평택호를 끼고 있는 수변도시라는 평택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일일, 주간, 월간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시는 '평택의 물'을 수돗물 브랜드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

난 2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남 완도군 넓도 주민들에게 평택의 물 5000병을 기부하는 등 병입수 평택의 물을 재난지역과 단수 지역에 비상 급수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축제 관람객들은 '평택의 물'을 홍보하는 직원들에게 '평택의 물'에 대해 질문도 하며 관심을 보였고,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을 제공해 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간혹 '평택의 물'이 생소한 시민들은 이번 홍보를 통해 식음하며 "수돗물 특유의 냄새도 없고 물맛이 좋다"고 표했다.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박천수 소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이 시민 행복의 필수요소로 평택 시민들에게 최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안양시, 세계인의 날 '가족 명랑운동회'...다양한 문화 행사로 성료

다문화·비다문화가족 500여명 참여, 이해·공감하는 유쾌한 운동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가족 명랑운동회'가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22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 가족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운동회를 통해 함께 어울리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다문화·비다문화가족 500여명은 오전 9~12시까지 장애물 달리기, 고무신 던지기 등 유쾌한 가족운동회

와 세계의상 및 악기체험, 세계나라퀴즈 풀기, 다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A씨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 됐다"며 "우리 가족처럼 다른 나라에서 이곳에 정착한 가족들을 많이 알게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비다문화가족 B씨도 "다문화가족과 한 팀으로 경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오연주 안양시 가족센터장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리의 삶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어느 시민의 말과 같이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부산시, 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해 '시민행복도시의꿈' 실현

부산시 3건, 교육청 5건 등 양 기관이 제안한 8개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예정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오늘(22일) 오후 4시 30분 부산시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21세기 세계적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자 '2023년도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만나는 '교육행정협의회'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학생 안전 등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2회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안한 안전 총 8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 법령 마련 등 제도 개선 협조 요청 ▲교육부 주

관 학교복합시설 공모 신청 적극 협조 ▲부전도서관 임시 개관을 위한 놀이마루 일부 사용 협조 등 3건을 제안하고 부산시교육청의 협조를 구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역혁신사업(RIS) 연계 숙박형 인성영어캠프 운영 요청 ▲학생인성교육원 "건강 숲치유길" 조성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부지 지원 협조 ▲아침체인지(體仁智) 및 생활체육 전국도시연계 ▲통학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공조 요청 등 5건을 부산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영도구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중인 만큼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발생한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통학로 내 안전 실태 전수조사와 안전 점검을 실시해 사고 예방과 함께 개선사항을 신속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논의할 과제들을 비롯해 지역의 교육 현안이 매우 많은데,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역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며, "수도권 중심체제를 벗어나 부산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교육 분야에서도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진진기자

건강한 청송군을 만들자!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최근 주왕산 국립공원 맨발걷기 행사와 연계하여 '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지방을 줄이자'라는 슬로건으로 비만 예방 합동 캠페인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청송군이 합동으로 비만예방의 필요성을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비만예방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실천(금연·절주·영양·구강)과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뇌혈관질환, 지역사회중심재활, 국가 암 검진, 감염병 예방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주민들이 온라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네이버 밴드(청송군 걷기사업 밴드 '걸음아 날 살려라')와 새소식지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비만 홍보 영상도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청송군보건의료원에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영양사가 상주해 있어 언제든지 개인별 운동처방 및 건강 식단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천시, 보라색 유채꽃이 만개한 퍼플 영천에 와 보라!

영천시공원관리사업소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감상하며 산책 할 수 있는 힐링공간인 '금호강 둔치 꽃밭'을 조성해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는 '보라색 유채(딤소켓)'가 만개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인기를 끌고 있다. 보라색 유채는 작년 10월에 파종해 겨울을 나고, 지난 4월부터 개화해 5월에 만개했다.

금호강 둔치 꽃밭은 어린이날 연휴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꽃구경을 하기 위해 가족 단위가 많이 찾았으며, 연인들 및 젊은 층에서도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사진 동호회 및 개인들은 등이 틀 무렵 사진을 찍기 위해 긴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누르는 등 촬영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산, 모자, 드레스 등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활용한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까지 보라색 꽃밭에선 누구나 모델이 됐다.

영천시 관계자는 "보라색 유채는 색상이 선명하며 향기도 좋아서 꽃밭 주변에 조성된 맨발 황톳길을 걸으면 절로 신이난다"라며, "지난 15일까지 각지에서 수천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특히 주말엔 날씨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증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호강 둔치 꽃밭에는 보라색 유채뿐만 아니라, 산책로를 따라 알록달록 5월의 장미와 꽃양귀비, 붉은인동도 만개해 방문객들을 반기고 있다.

한반수기자



두바이에서 대구 미래 50년 대변혁의 방안을 모색!

K-2 공항 후적지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 개발 방안 마련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대표단 일행은 2023년 5월 19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지에서 두바이의 대규모(공공주도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 개발 선진사례를 시찰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K-2 공항 후적지를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 관광·상업·첨단산업 도시로 개발해 대구의 미래 50년을 이끌어가는 월드시티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두바이가 추진한 세계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창의적 발상과 혁신의 실행 과정 및 시행착오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을 마련하고자 했다.

5월 19일 두바이 현지시간 오전 10시에 두바이 합틀 호텔 회의실에서 개최한 '두바이 공공주도형 개발방식 설명회'에서는 파이살 알 라이시(Faisal Al Raisi, SVP Business Development Excellence, Confidential)의 두바이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설명과 K-2 공항 후적지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본 설명회에서는 두바이가 작은 어촌마을에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와 사막 한가운데서 인구, 자본, 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안과 도전이 있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했다. 이와 함께 K-2 공항 후적지 개발사업 추진 시 두바이 비전 중 벤치마킹할 사항과 향후 상호 협력 방안을 교환했다.

이번 설명회와 현지 시찰을 통해, 글로벌 관광·상업·비즈니스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인공호수와 물길로 이루어진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축물과 상업·업무·문화·컨벤션·엔터테인먼트·호텔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활동이 형성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유치와 비즈니스 및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4시간 잠들지 않고 운영되는 글로벌 여객·물류거점 신공항과의 연계와

특별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 및 기업친화적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또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첨단기술(AI, 메타버스 등)을 통해 대구 미래 50년을 이끄는 서비스 및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설명회와 현지 시찰을 통해 얻은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K-2 공항 후적지의 비전과 전략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고, 지난해 10월에 착수한 '공항 후적지 마스터플랜 고도화(세부) 용역'에 반영하는 등 내실을 다져 대구의 미래 50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두바이처럼 글로벌 여객·물류거점 신공항을 통해 하늘길을 열고 공항 후적지가 글로벌 관광·상업·첨단산업 중심 도시 조성을 통해 대구의 미래 50년의 대변혁을 이끌어 가는 신성장 거점이 되면, 시민의 삶터, 일터, 놀이터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금호워터폴리스

- 상업, 근생, 지원,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 관광숙박시설용지 공급 중

안심뉴타운
ANSIM NEWTOWN

- 일반상업, 준주거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분양문의 053) **350-0300**

대구도시개발공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회 문경박달가요제 개최

문경의 가왕을 가리다



한국방송가수협회 문경지부에서 준비한 제10회 문경 박달가요제가 19일 오후 7시 모전공원 야외공연장에서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가요제는 관내 아마추어 지역가수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참가 신청한 30명 중 지난 13일 예심을 통과한 13명의 본선 참가자들이 결선 무대에 올라 수상자를 가렸다.

또한 한국방송가수연합회 소속 가수들이 식전 행사에 출연해 행사 분위기를 한껏 띄웠으며, 열띤 경연 결과 영예의 대상은 조재동(광대)씨가 차지했으며 황시윤(보고싶다 내사랑), 김성숙(‘자갈치 아지매’), 신상우(‘군산항아’), 김수연씨(‘못난놈’)가 각각 금, 은, 동, 인기상을 차지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참가자분들 모두 우수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가수의 꿈을 꼭 이루고, 문경뿐만 아니라 전국 대표 가수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연 결과를 떠나 다 같이 공연을 즐기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가 차지했으며 황시윤(‘보고싶다 내사랑’), 김성숙(‘자갈치 아지매’), 신상우(‘군산항아’), 김수연씨(‘못난놈’)가 각각 금, 은, 동, 인기상을 차지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참가자분들 모두 우수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가수의 꿈을 꼭 이루고, 문경뿐만 아니라 전국 대표 가수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연 결과를 떠나 다 같이 공연을 즐기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현장 소통의 날' 강구 대계상가 활성화 방안 모색

영덕대계 홍보, 관광객 유치, 환경개선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영덕군은 지난 17일 강구수협 2층 회의실에서 '제4회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대계 거리 상인과 수협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에 대응해 강구항 일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김 군수와 상인들은 충청과 대전권을 포함해 접근성이 좋아진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전광판과 지하철 광고에 대한 홍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영덕대계 홍보에 힘쓰겠다는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영덕대계축제의 홍보 효과를 높이 평가하며 축제의 성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영덕대계거리 상인들의 축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더불어 이번 간담회에선 강구수협 위판장 공영주차장의 차량 멈춤 시설물 개선,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강구항 구대교 공사 불편 사항, 집

중 호우 시 강구항의 안전성 확보 등이 논의됐으며, 김 군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담당자들에게 개선사항을 지시하거나 향후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김 군수는 영덕군이 공모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설명하며 강구항 일대가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를 당부했다.

강구1리 상가변영회 이진영 회장은 “군수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오셔서 가능한 것을 바로 조치하고 어려운 것은 왜 그런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 저희도 이해가 되고 협조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2월 영덕대계 축제를 앞두고 고객행위 근절을 위한 가두 캠페인 및 단속을 시행하고, 영덕대계거리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화하는 등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문화기자

구미시, 우리밀산업 추진을 위한 첫발을 떼다

구미시는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생산단체와 소비자단체 협력으로 우리밀 보급 확대와 거점지역 선점을 위해 밀산업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열었다.

협의체는 생산자 3개단체, 제과제빵 14개업체, 제분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발대식에서는 우리밀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국산 밀의 자급률이 0.8%인 척박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국산밀 품질 향상을 위해 종자선택과 재배법, 1.5등급이상의 제분밀 생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생산단체와 소비자단체가 협업체를 결성함으로써 구미시가 우리밀의 거점지역으로 선점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전하면서“앞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우리밀 생산 체계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경북도,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 첫발 내딛다

한수원 투자 경북형 산단 지붕태양광 프로젝트 1·2·3호 동시 착공

경북도는 22일 영천 화산농공단지에 위치한 거평그린에서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 장필호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사업본부장,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경북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단 태양광'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14일 도청 K창에서 지역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단 태양광' 조경·투자·지원 협약 체결 후 열린 첫 착공식이다.

이번 사업은 경북 산업단지 산업시설면적(8,215ha)중 30%에 해당하는 유휴 공간(지붕 등)에 2.5G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산단 기업주에게 새로운 소득과 기후변화 규제(RE-100)에 대응한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공관리는 지역기업의 100% 참여로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영천, 구미, 경산 3개소에서 1,380kw정도를 동시에 착공하는 산단 지붕태양광 프로젝트는 경북도와 함께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시군 투자유치부서 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를 홍보한 성과인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제1호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기업은 영천 화산농공단에 소재한 인조잔디 제조·시공업체인 거평그린으로 공장지붕(6,745㎡)에 712.8KW를 설치한다.

한수원으로부터 20년 동안 연간 2천8백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다. 최초 10년간 선금 2억8천만원 정도를 미리 지급 받는다.

제2호 기업은 1972년 창사한 구미장수기업으로 공단동에 소재한 자동차 범퍼, 플라스틱 제조사인 대명산업사로 태양광 391KW를, 마지막 제3호는 경산 진량읍에 소재한 문구완구 도소매업체인 팔팔은유어완트로 태양광 276KW를 설치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 동시 착공에 참여한 각 기업주들은 경북



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대전환 정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향후에도 협약한 공기업 등과 함께 전담조직(원스톱지원단)을 운영해 사업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참여기업 에너지 진단 및 절약, 근로자 복지 등 지역상생을 위한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 활성화에 박차를 가

할 예정이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형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라며,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신 한 번 부탁드리며, 경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를 신속히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도농상생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의성군은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도농상생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했다.

이번 장터는 한국체육산업개발과 농협경제지주가 함께 추진했으며, 도농상생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최상의 품질의 지역 상품을 도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이번 직거래장터에 의성군은 7개 농가가 참여하여 의성군 대표 농특산물인 의성마늘 가공품, 사과, 쌀, 고추장, 떡, 백엽차, 마시니식초 등 지역 우수 특산물 10여개 품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의성군은 올림픽공원 직거래장터를 2020년부터 꾸준히 참가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의 장 확대와 도농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에 더욱 힘쓰는데 기여한 노력으로 2022년에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은 이력이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한국체육산업개발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추진하여 도시민에게 의성군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 동구,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 명사초청 아카데미 개최

대구 동구청은 지난 17일 '방송인 김영철'을 초청해 주민 5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명사초청 아카데미 1회차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김영철 강연자는 '멈추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간직하지 말고 뱉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를 강조하며 주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이번 아카데미는 대구 지역 최초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과 접근성을 위하여 노력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살기 좋은 도시, 살 맛 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특강 일정은 다음과 같다. ▶ 7월 21일 노규식 의사 '마음 읽어주는 부모, 신나게 공부하는 자녀' ▶ 10월 25일 최성에 소장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 11월 29일 김태원 디렉터 '글로벌 인재란 무엇인가' ▶ 12월 6일 김지윤 소장 '슬기로운 가족생활' 특강 신청은 온라인 및 전화로 가능하다.

김동현기자

영주시, '선비 만나러 갑니다' 가족 프로그램 운영

'선비행복가정만들기'...주말 소수서원서 영주 선비들의 삶과 역사 체험

영주시 (사)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는 20일~21일, 양일간 소수서원에서 영주의 인물과 선비의 삶을 배우보는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선비 만나러 갑니다'를 개최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말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32가정 103명이 참가해 영주의 역사적 이야기와 인물만나기, 전통놀이를 통한 선비의 삶 체험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전 10시 소수박물관에 집결해 선비 의상으로 갈아입고, 소수서원 일대를 걸으며 주세붕, 퇴계 이황, 금성대군 등 역사 속 인물로 분장한 캐릭터와 만나 역사를 배우고 서예글씨쓰기, 활쏘기 등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오후에는 실내에서 다도체함과 화가투놀이(시조카드를 바닥에 깔고 누가 더 많은 시조를 외우는지 겨루는 놀이)를 통해 옛 선비의 예절과 전통놀이를 배우며 선조들의 삶을 경험했다.

이날 행사는 소수서원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아주 쉬운 선비이야기' 강의 진후, 참가한 32가정에 선비가정증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시민은 "선비 체험이라서 딱딱한 행사인 줄 알았는데 실제 참여해보니 아이들은 놀이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라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고 유익했다"며 내년에도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가정

참여해 주셨다. 세계유산 소수서원에서 지역의 인물과 선비에 대해 알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영주의 역사와 선비정신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Think big - Brighter **학**

2023년 **명사초청 아카데미**

1회차 '이양인터랙티브 어빙클' 5.17(수) ~ 12.6(수) / 5회차

회차	일정	강사(주제)
1회차	5.17(수) 14:00	김영철(방송인) '멈추지 않고 배우는 이야기'
2회차	7.21(토) 14:00	노규식(의사) '마음 읽어주는 부모, 신나게 공부하는 자녀'
3회차	10.25(수) 14:00	최성에(소장)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4회차	11.29(수) 14:00	김태원(디렉터) '글로벌 인재란 무엇인가'
5회차	12.6(수) 14:00	김지윤(소장) '슬기로운 가족생활'

대구광역시 동구 대동로10길 10 대구소수서원

경북도, '중소형 양식어가 맞춤형 스마트양식시스템'개발 나선다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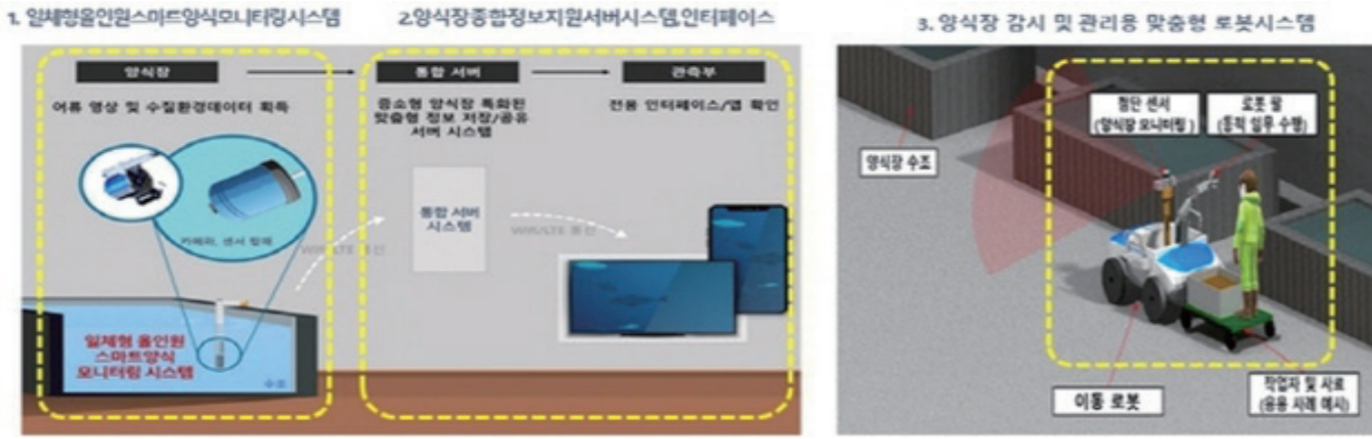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항공단 경북씨그랜드(센터장 유선철 교수)와 협업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형 양식어가 맞춤형 스마트 양식 시스템 및 인력 절감을 위한 원격 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역주민 및 지자체가 직접 소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이다.

지난해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총 20개 사업을 공모 신청했으며 연구자와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소통하는 리빙랩 사업으로 올해 5월 최종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경북도는 공모 선정으로 2023~2024년까지 총 6억원(국비 4억5천만원, 지방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이동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양식장 감시 및 사료 운반용 로봇시스템 개발이다.

이동형 스마트 양식 모니터링 시스템은 방수카메라와 수온·용존 산소 측정 센서를 막대기에 부착해 수조를 옮겨 다니면서 수온측정과 어류의 상태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또 축적된 데이터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중소형 양식어가에 제공되며 양식장별로 맞춤형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양식장 감시 및 사료 운반용 로봇 시스템은 차량형으로 설계되며 사료 운반 카트를 연결해 중소형 양식장의 환경 감시와 사료 급이 등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경북씨그랜드는 2009년부터 해양수산부 씨그랜드 사업을 14년째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분야 첨단 IT 기술 활용을 통한 차별화된 현장 중심형 연구개발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경북씨그랜드는 전국 8개 센터 중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실적 1위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대표 보유 기술로는 해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호미 디지털 시스템, 스마트 양식 카메라 시스템 등이 있다.

경북도는 전국 양식어의 5%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10년 사이 어

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 환경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어 중소형 양식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형 맞춤형 스마트 양식 시스템이 개발되면 경북도 어업기술원을 중심으로 도내 어가에 시범사업으로 시스템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김중권 경북도 환경해지역본부장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에 첨단 IT기술을 접목해 노동력 감소 대응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한 소득을 증대하고, 경상북도 귀어학교를 통한 청장년층의 어촌 유입을 적극 추진해 지역 어촌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2023년 장계향탄신 425주년 기념 춘계 헌다례" 개최



조선 중기 여중군자라고 칭송됐고, 최초의 한글조리사인 '음식디방의' 저자인 장계향선생(1598~1680)의 일을 기리기 위한 '2023년 장계향탄신 425주년 기념 춘계 헌다례'가 경북지역 19개선양회 지부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부의 날인 5월 21일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 장계향문화체육교육원 존안각에서 개최됐다.

(사)여중군자장계향선양회는 경북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 인물인 장계향선생의 일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매년 춘계, 추계에 두 번에 걸쳐 헌다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계향선생은 시, 서, 화에 재주와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온 평생 박애의 정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진심을

다했으며, 7명의 자식들을 퇴계학의 학맥을 잇는 훌륭한 학자로 키워내는 등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 후세의 사표가 됐다. 또한 가족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인간적 본성을 다하여 스스로 인간답게 사는나를 보여주는 이상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홍필남 선양회장은 "헌다례를 개최함으로써 장계향선생의 훌륭한 사상과 업적이 후세까지 기억될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계향선생의 가르침과 뜻을 널리 선양하여 장계향선생이 한국의 대표 역사인물이자 세계여성사의 한 인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주민문화 놀이 장터 『옹기종기 옹천장』개장!

주민 중심의 지역 고유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시민역(力)사문화도시 안동에서는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문화놀이장터' 옹기종기 옹천장' 행사를 20일 북후면 주민자치센터 및 옹천역사부지 일원에서 진행했다.

옹천장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 성장을 지원해 문화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이 가진 전통과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마을문화를 브랜드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관광객들은 풍물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경험했다. 특히, 추억의 계란밥과 장떡, 옹천전뽕·손만두를 시식하고 마을 어른들이 직접 진행하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실팽이 만들기 체험, 어린이들이 운영하는 간식코너 등이 운영돼 옛 추억을 되새기며 이색적인 전통의 맛과 재미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



이 외에도 옛날 사진전, 바람개비 만들기, 양조장 박물관 관람, 주민 장기자랑 등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행사를 준비한 북후면 옹천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아이들이 시작한 어린이 옹천장 행사 이후 4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옹천장을 사람과 문화의 교류라는 장터의 고유한 가치에 기반한 지역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만들었다"

윤근수/기자

문경시 불교연합회, 불기 2567년 봉축 법요식 봉행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염원

문경시불교연합회는 5월 21일 저녁 6시부터 모전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발원하는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봉축 법요식은 문경시불교사암연합회장 상오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주지 스님들과 신현국 문경시장,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수석부의장, 시의원, 신윤교 문경시불교신도연합회장, 불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전 공연인 바라춤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관불의식을 진행했으며, 특히 문경시 불교연합회에서 문경시장학회에 3백만원을, 문경시 불교신도연합회에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2백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기를 더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누



리에 퍼져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문경시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 노인들이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나서다



대한노인회 경상북도 연합회장과 각 시군지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8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운동에 힘을 보탰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회의로 미, 중, 일, 러 4강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에서 순회 개최되고 있다.

지난 2005년에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게 될 APEC 정상회의의 사회경제적 유발효과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

산되어,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경북 지역 경제에 9,72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4,65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7,908명의 취업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대한노인회 경상북도 연합회장과 각 시군지회장들은 "경상북도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지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경주에서 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승회 경주시 노인회장은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역량, 경험을 모두 갖춘 도시다"라며 "특히 충분한 숙박시설과 문화유적을 비롯해 빼어난 경관 등 볼거리가 많고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와 각종 회의도 소화할 수 있다"며 경북도 노인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했다.

윤태용/기자

예천군, 주민과 함께하는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 개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과의 소통행정 펼쳐

예천군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유천국가마을에서 모아엘가에듀파크 주민 대상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는 10만 자족도시 조기 건설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청한 단지(9개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들과 정책 방향을 상호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다양한 연령층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말에 개최해 중학교 초기 신설 문제,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 및 행정서비스 일원화 등 전문 분야에 걸쳐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 실·과장들과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란도란에 앉아 마치 피크닉에 온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김학동 군수가 직접 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오이·가지청 만들기 체험, 회동포 및 삼강주막 견학 등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두



터운 정도 쌓았다.

김학동 군수는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로 주민들이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행정 신뢰성 향상과 주거 만족도 개선의 밑거름이 되

길 바란다"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자주 마련할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여기가 순천 맞나요? 외국 방블케 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체코 국가의 날 행사로 진행된 금관5중주 공연, 박람회 품격 더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외국인 관람객 유치는 물론 세계 각국의 문화를 아우르는 '국가의 날'행사를 연일 성황리에 치러내며 국제행사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21일, 여수항으로 입항한 프랑스, 미국 크루즈 관광객 50여 명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정원을 돌아보며 "세계 여러 나라의 정원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좋았다", "5월, 장미정원이 굉장히 아름답다. 사진 찍기 바빴다", "여행 일정이 정해져 있어 더 둘러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재방문하고 싶다"며 박람회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정원박람회를 찾은 외국 크루즈 관광객만 하더라도 200여 명 이상이며, 10월에는 구미주 관광객 350여 명의 방문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국여행업협회와의 업무협약, 수차례에 걸친 여행사 초청 설명회, 전남관광재단 및 여행사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온 조직위의 관람객 유치 활동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프랑스·미국 크루즈 여행을 유치한 크루즈갤러리 여행사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동양 국가에 대한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크루즈 여행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조직위와 지속적으로 박람회와 연계된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국가정원에서는 체코 국가의 날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갯벌공연장에서 열린 금관5중주 공연은 체코문화원장(미샤 에마노브스키)을 필두로 구성된 연주단의 선율로 유럽 작곡가들의 명곡을 풀어나 박람회의 품격을 한층 높여냈다.

주한체코대사(구스타브 슬라메츠키)도 행사장에 직접 자리해 "체코의 날을 맞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따스한 햇살과 함께 국가정원을 가득 채우는 멜로디와 리듬을 맘껏 즐겨주시기 바란다"며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진행된 체코 국가의 날 행사는 지난 4월 마리오네트 어린이 인형극에 이어 두 번째다. 조직위는 체코 국가의 날을 기념해 체코의 유명 정원 식물 그림 작가인 파블리나 쿠르코바의 보테니컬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도 진행하고 있다. 전시회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다.

한편 조직위는 박람회에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 수 산정을 위해 국가정원 동문, 서문, 남문에서 외국인 관람객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승준/기자

명현관 해남군수 경제 교류협력 협의차 중국 이수시 방문



명현관 해남군수가 중국 이수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차 중국 이수시를 방문한다.

명군수와 군 관련부서 공무원 등은 21일 출국하여 이수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 해남농산물 홍보, 기업간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무역집합창고 개관식 및 발차식 참석, 국제거래시장, 도시계획관 등을 둘러보는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 방문은 해남군이 꾸준히 이어온 대중국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이수시와는 지난 2021년 온라인 특산물 교류회를 시작으로 2022년 온라인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국 이수시한국중소기업무역촉진 포럼 참석 등 교류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

명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해 온라인으로 교환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정식 체결하고, 예평루이 이수시장과 왕웨이 부시장 등과 국제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대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중국 이수시는 상주인구 260만명

윤선애/기자

"광주의 모든 세계인은 광주시민이다" '시민의날' 성료...광주시포용도시선언

세계인의날·베트남인의날·유학생의날 함께 열어

21일 광주 북구 중외공원에서는 광주시민과 고려인동포, 베트남인, 유학생 등 3만여 명의 세계인들이 어우러지며 '포용도시 광주'를 만끽했다. '광주 시민의 날'이 3년 만에 대규모 대면 행사로 치러지면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중외공원 일대에서 '150만, 가족이 웃습니다'를 주제로 '제58회 광주 시민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인의 날'과 '베트남인의 날',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도 함께 열리면서 광주 시민과 세계인들이 하나가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58회 광주 시민의 날은 외국인 유학생의 날, 베트남인의 날을 한자리에서 함께 했다"며 "광주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든 외국인 또한 광주 시민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로써 세계시민은 광주 시민이 되고, 광주시는 포용도시로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 시민의 날이 광주의 포용성을 증명한다"며 "광주시에 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시민의 날 기념식'은 오후 6시 20분 개막 선언과 함께 시작됐다. 무용 공연과 시립합창단의 '광주 시민의 노래' 합창, 기념 영상 '150만 가족이 웃습니다' 상영, 2023 광주 시민대상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광주 시민대상은 사회봉사부

문 윤풍식 (㈜국민그룹 회장, 문화예술부문 정혜경 대한무용협회 광주광역시지회 고문, 체육부문 광주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 지역경제진흥부 김형석 남해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특히 광주공항공항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송갑석·이윤빈·조오섭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가수 선우와 광주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선율을 배경으로 광주 시민 가족 대표와 강기정 시장, 정무장 시의회 의장, 이정선 시교육감이 무대 위로 올라 '내일이 더 빛나는 광주'를 향한 희망의 촛불을 밝혔다. 촛불은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선수가 활시위를 당겨 점화했으며, '2025 광주 세계양궁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았다.

가수 10cm, 김기태, 다비치, 바리톤 김동규, 재즈보컬리스트 고아라, 록밴드 크라잉넛, 선우 등 국내 정상급 K-팝 스타들과 성악가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이날 함께 열린 '제18주년 세계인의 날'과 '제1회 유학생의 날' 행사는 세계문화체험전, 광주유학박람회, K-컬처 체험코너 등이 마련돼 시민과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유학생 장기자랑에 나선 외국인 학생들은 재능과 우리말 실력을 뽐내자 한바탕 웃음과 큰 박수가 터져나



왔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베트남인의 날' 행사에는 전국의 베트남 교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전통문화체험과 베트남 기업이 생산한 농수산물품 등 제품이 소개됐다. 특히 광주시 자매도시인 응에안성의 공연단이 선보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킨족 민속춤 '비잠 고향의 정' 공연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행사의 주제가 '가족인 만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자기만의 멋진 포즈를 뽐내며 사진을 찍는 '스마~일 찰칵, 인생 네컷', 보물카드를 찾아 선물로 교환하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추억의 보물찾기', 캐리커처 등 '가족오락관'도 시민들로 북적였다.

김병수/기자

신안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4명 힐링 역량강화 교육 진행

꽃 향기 품은 힐링섬 신안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신안군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1004명 힐링 역량강화 교육을 5월 19일부터 시작하여 4회에 걸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4개소 360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섬 곳곳의 관광 명소 탐방 등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1차 교육은 지난 19일(금) 안좌면 퍼플섬 일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5명을 대상으로 1004명 힐링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힐링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대민 복지서



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평소 감사소모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잠시나마 신안

'강진 불금불파' 26일 5시 개장식 개최...10월 말까지 매주 금~토 열려

연탄 돼지불고기로 유명한 강진군이 오는 26일, 5시에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를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의 올해 처음 선보이는 '불금불파'는 맛의 1번지 강진 대표 먹거리인 병영돼지 불고기와 관광객들을 연결한 새로운 관광모델로, 이번 개장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매주 개최된다.

행사장에서는 연탄돼지불고기, 하멜촌맥주, 국수 등 다양한 먹거리와 토하젓, 병영전통주 등 살거리,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병영 한글목 관광 투어, 추억의 오락실, EDM DJ제이와 함께하는 디스코 마당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만날 수 있다. 군에서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 입구 주차장에 승용차 70대 규모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병영하멜기념관 주변에 텐트촌 20개소, 음수대, 화장실, 샤워장을 구비하는 등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사는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광주광역시나 순천·목포권 기준으로 이동시간이 1시간 전후로 소요돼, 군은 인근 시군에서 대거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권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운영되는 셔틀버스는 버스 한바퀴 홈페이지에 강진 불금불파로 검색해 예약하면 된다. 강진원 군수는 "관광객 500만 유치를 위해, 금요일은 불금불파를 즐기고, 토요일은 마량농토시장에서 보내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제공하겠다"며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다양한 축제와 연계해, 강진만의 매력으로 관광객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강진 불금불파 행사는 7월과 8월은 폭염으로 휴장하며,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계속된다.

추운호/기자



함평천지물, 무농약 미니밤호박 첫 출하 특가전

22일부터 '1kg 6,000원'...43% 할인 판매

전남 함평군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함평천지물'에서 지역 대표 특화작물인 무농약 미니밤호박의 첫 출하 특가전이 열린다.

함평군은 21일 "관내 하우스에서 조기 재배된 무농약 미니밤호박을 함평천지물을 통해 22일부터 특별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가 상품은 함평천지물 가입 회원에 한해 구매가 가능하며, 미니밤호박 구매 상세페이지에서 3,000원 쿠폰을 내려받으면 1kg 6,000원으로 43% 할인된(기존 13,900원)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함평천지물 신규가입 시 5,000원 할인쿠폰 발행, 포토후기 작성 고객은 추첨을 통해 5,000원 쿠폰 지급(매주 5명)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가전은 함평의 대표 특화작물인 미니밤호박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조기 재배된

미니밤호박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2~3주간 숙성한 후 드시길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진/기자

전남도, 숲속 캠핑문화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백운산자연휴양림서 '캠핑 축제', 캠핑요리 강의·버스킹 등 풍성



전라남도는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속 캠핑문화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남 숲속 캠핑 축제'를 지난 21일까지 3일간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아 주요 여행유형으로 자리잡은 캠핑 관광객 유

치를 통해 전국 캠핑 동호회 150여 팀이 참여했다.

올 들어 처음 진행된 숲속 캠핑 축제는 '5월의 백운산 별빛여행'을 주제로 가족과 함께 캠핑 요리 강의, 숲속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지역 명소 관광을 통해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뤄

졌다.

특히 고향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참여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에서 장보기 이벤트인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 또 지역관광과 연계한 대표 투어 등 특별행사도 펼쳐졌다.

어린이 참여자를 위한 어린이 숲 힐링존, 숲속 보물찾기와 소방안전교육, 가족 힐링콘서트, 마술·비눗방울 공연, 목재문화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됐다.

대구에서 캠핑축제를 찾은 김상진 씨는 "아름다운 5월의 숲속에서 가족이 함께 환상적인 별빛 아래 멋진 캠핑 축제를 즐겨 매우 기쁘다"며 "숲속 캠핑 축제를 자주 개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확대 조성해 쾌적한 숲속 휴양시설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산림생태관광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늘어나는 산림속박 수요를 반영해 자연휴양림 16개소와 숲속 야영장 2개소에 358개 및 숙박시설 279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캠핑 수요에 맞춰 숲속 야영장 6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등 산림생태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정해명/기자

강진군, 민선 8기 60대 프로젝트 어디까지 왔나?

이행률 34.2%, 추진력 돋보여...정책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강진군은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원 군수 주제로 각 부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5대 분야 60대 프로젝트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의 민선 8기, 5대 분야 60대 프로젝트 사업은 4월 말 기준 34.2%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며, 강진원 군수의 강력한 추진력을 증명했다.

보고회는 사업별 이행 상황,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소통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완료 후 계속 추진사업은 ▲전국 최고 규모 강진군 육아수당 지급 ▲더불어 사는 공동체 프로그램 강화이며, 임기 내 사업 100% 달성을 위해 ▲강진 한우 전국 브랜드 육성 ▲푸소(FU-SO) 시진2로의 도약 ▲쌀귀리 특구 조성 등 64건이다.

주요 공약 가운데, 전국적인 이슈를 몰고 온 '강진군 육아수당 지급'은 소득 수준이나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아동 1인당 매월 60만 원을 84개월(7세)까지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위해 '맛의 도시 강진 육성'을 중점 추진 중으로, 유명 요리사·파워 유튜브와 연계해 지역의 고유한 재료로 만든 특색있는 메뉴를 개발했으며,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MZ 세대의 감각에 맞는 홍보를 추진 중이다.

'SNS를 통한 소통 강화'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하기 위한 민선 8기 강진군의 핵심 전략 중 하나

로, 군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별 공식 SNS 소통창구를 개설·운영 중이다. 또 기술 혁명을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도전으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4차산업혁명지원팀'을 별도로 꾸리기도 했다.

이는 '소통, 연결, 창조'의 신강진'을 군정 슬로건으로 삼은 강진원 군수의 '소통 행정'에 대한 의지가 고스란히 투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제 예산의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공약도 지난 3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통해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30%를 확정 지으며, 약속을 지키는 원년으로 남게 됐다.

과거 강 군수 재임 시절인 2018년 약 32%의 비중을 차지했던 1차 산업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농축수산임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오다, 민선 8기 들어 다시 30%를 회복한 셈이다.

군은 1차 산업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군 산업구조를 반영해, 관련 중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3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지난해 취임 시 약속했던 모든 사업의 핵심은 '일자리와 연구가 늘어나는 강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군민들의 소득향상은 목표를 이룰 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성과"라며 "계획하고 준비해 온 사업들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치적인 결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 없이 60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추호연/기자

전남도, 소중한 생명 지켜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세요

전라남도는 홀로사는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도록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발굴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다. 또 장애인 중 활동지원센터나 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 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로 구급구조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두 차례 사업을 추진해 2만 8천225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발굴을 통해 4만 225가구가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2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홀로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1천766건의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를 지원했다.

김평권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해야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사업 대상 가구에서는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해명/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민생경제 침체, 지방재정 신속 집행 중요"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주제 "전 부서장 사업성 예산 리스트 관리, 재정 집행 실적 인사 평가 반영"

윤병태 나주시장이 올 상반기 추진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상황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사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 주재로 전체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2024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함께 개최했다.

윤병태 시장은 보고회를 통해 재정 집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며 이후부터 전 부서 재정 집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원가 상승 등 국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어느 때보다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공공부문 발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사업 발굴, 예산확보, 비전 제시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집행 관리를 위한 부서장의 역할과 책임, 집행 실적에 따른 인사평가 인센티브 반영을 강조했다.

윤 시장은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업성 예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부서장이 직접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사업별 예산 리스트 작성, 관리를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집행 실적을 담당 직원 인사고과 평가항목에 반영하겠다"며 "집행 실적에 따른 인사 가점, 성과 상여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국고건의 신규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지역 발전 핵심 동력이 될 내년도 주요 국고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인공태양연구소' 유치,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기반 스마트변압기(SST) 실증센터' 구축 등 미래첨단과학도시 비전 사업과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조성 등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역사문화관광 1번지 도약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나주읍성 K-Garden' 조성과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나주 영산지구 배수개선' 등 각종 기반 시설사업도 반영됐다.

김영만/기자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전략 사업인 푸드테크분야 '푸드 업사이클링 지원센터' 건립과 지역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감염병 예방 응급시설' 등을 내년도 국고 신규사업으로 발굴했다.

나주시는 신규 국고 건의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이행 절차와 더불어 전남도 및 중앙부처 적극적인 발품과 설득을 통한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내년도 정부 재정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기엔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지역 성장동력이 될 국고 확보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왜 필요한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누가 운영해야 하는지 등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논리 확보에 충실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태 시장은 "내년도 정부 재정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기엔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지역 성장동력이 될 국고 확보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왜 필요한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누가 운영해야 하는지 등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논리 확보에 충실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태 시장은 "내년도 정부 재정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기엔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지역 성장동력이 될 국고 확보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왜 필요한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누가 운영해야 하는지 등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논리 확보에 충실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은 열매숙기와 봉지씌우기 작업으로 바쁜 시기이다. 농가의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를 농촌일손돕기 중점 주

윤경호/기자

여수에 르 소레알 크루즈 입항...18개국 343명



전라남도 여수시는 프랑스 포난의 1만 900톤급 르 소레알(Le Soleal) 크루즈가 프랑스, 미국, 호주 등 18개국으로 구성된 승객과 승무원 343명을 태우고 지난 21일 여수 엑스포터미널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르 소레알(Le Soleal) 크루즈 승객들은 순천 낙안읍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순신광장 등 전남 동부권 주요 관광지로 구성된 3개 관광코스를 둘러본 후 이날 오후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했다.

이번 크루즈 입항은 지난 4월 미국 실버시의 실버 위스퍼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전남도와 여수시가 지난해 4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씨트레드 크루즈 글로벌'에 참가해 세계적 크루즈 선사인 포난과의 기항지 설명회 및 개별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 오는 10월엔 실버 위스퍼 호가 한 차례 더 입항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미국 포트로더 데일에서 열린 '씨트레드 크루즈

글로벌'에 참여해 기항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난과 실버시의 2025년 기항지 기대된다.

또 전남의 아름다운 섬과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익스페디션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 실버시(Silversea), 프랑스 포난(Ponant) 등 럭셔리 익스페디션 크루즈선사와 구체적인 상품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익스페디션 크루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를 즐기는 최고급형 크루즈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과 방역 절차 간소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기항지 관광상품 개발 고도화,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기항지 기반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전남이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 및 문화관광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익스페디션 크루즈로 해외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파주시, 내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운영 정상화

파주시는 코로나19 대응이 오는 6월 1일부터 일상 회복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예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요금부과를 내달 1일부터 정상화한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평일 09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으나 야간 단속을 1시간 연장해 22시까지로 강화한다.

주말 단속(09시~18시)과 점심시간 단속유예(11시 반~14시)는 지역상권 활성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의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면 1분만 지나도 단속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는 현재 2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코로나19 이전 종전대로 10분까지만 무료로 전환된다. 다만, 전통시장 주차장은 1시간 무료(기본 30분, 방문 30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영주차장별 상이한 요금부과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으로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말 및 공휴일은 모두 무료로 개방하고, 평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자정 주차관리과장은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행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대대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총 380억 원을 투입해 6개소 1,230면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지역실정에 적합한 주차공간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기기자

경기도 특사경, 배달 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30곳 적발

경기도 내 배달음식 전문점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소 30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주요사례

사례1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수원시 소재 A 식품점영업소는 업소 내 냉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사브사브용) 35kg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소고기 35kg(사브사브용) 원산지 거짓 표시 호주산 → 미국산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점영업소)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점영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식품점영업소는 업소 내 냉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점영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12인량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창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점영업소는 0~10°C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C 정도의 냉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점영업소는 원료 보관실, 조리장의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도,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애가 끼어 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창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의 경우 고객이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라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추진

광명시가 청년 세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광명시는 최근 도시재생국장을 단장으로 한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주택과, 민원토지과, 징수과, 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장은 "전세사기는 청년 세대를 극단과 절망으로 내모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며 "광명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만에 하나 피해자가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구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주거지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우선 광명시민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지를 LH와 신속하게 연계 지원하고, 시 자원을 활용해 생계비, 법률상담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금융지원,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광명시가 올 9월부터 운영하는 주거안정지속 사후관리단인 '내집애(愛) 지원단'을 통해 주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로 인한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도·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금리로 인해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젊은 세대들이 자칫 보증보험료를 아끼려다 전세사기로 인해 고스란히 보증금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3

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8~34세 무주택 청년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지침을 배포한 상태로, 시는 경기도와 발맞춰 적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신혼부부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관내 5억 원 이하 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0.6~1.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연 8천만 원 이내, 청년 연 5천만 원 이하이며, 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과 관련, 신청 청년의 절반 이상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을 지난 18일 국토부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현행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내를 80% 이내로 완화해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 60%인 월 124만 6천 원 이내이어야 한다. 중위소득 80%는 166만 2천 원이다. 지방세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유예, 분할고지, 고지유예 등을 적용한다. 또 체납자일 경우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사전 차단에 전력... 전월세 안심 계약 서비스 등 도입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세사기는 대부분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벌어져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전세금 반환 등 실질적 구제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2월 구성된 '광명시 공인중개사 마을봉사단' 23명을 주축으로 6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작한다. 부동산 경협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계약 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서류를 검토해주는 서비스이다. 도움을 받으려면 시청 민원토지과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청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전세피해예방 상담소'를 두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일선공인중개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도 강화한다.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 전세 피해 방지 안내문과 해당 임대주택 보증가입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가 가능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소개, 광명시 임대차 상담 제도, 전세피해센터 안내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와 함께 관내 전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차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악성 임대인으로 의심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는 전세사기가 당 등 불법행위를 수시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빌라 후수가 적고 재개발·재건축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빌라와 연립주택이 멸실화하는 추세로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윤용민기자

전북도 특사경, 6월 2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전주, 군산, 익산 지역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 단속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행위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

다.

이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행사도 많은 5월에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키거나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출기자

www.k-oceans.co.kr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Korea Oceans and Fisheries EXPO 2023

5.31수-6.2금 경주화백컨벤션센터 (HICO)

[주최] 경상북도 GYEMSANGBUK-DO
[주관] mire 원동해산업연구원
[후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명품 '붉은 대게' 먹고 가시'게~

명품 '붉은 대게' 매일 1,000마리를 무료로 즐겨보세요!
 참여 : (사)경북붉은대게통합회
 수량 : 매일 1,000마리 (행사기간 중)

토속 관상어 전시

여러 종의 관상어 구경하고 금붕어도 무료로 분양하세요~

★ 참관 포인트

신선한 수산물·수산 식품을 한자리에서!

- 내고향 수산물 판매전, 수산식품 시식행사, 간편식 모음전 등
- 바다와 만나는 시간!**
- 해양수산 체험관, 토속어류 / 민물고기 특별관, 귀어귀촌 / 어촌특화 특별관, 해양헬스케어 특별관, 해양환경 특별관 등
- 올해 여름 휴가 준비, 해양수산엑스포에서!**
- 해양·수상레저 특별관 (오토, 보트, 제트스키), 지자체 관광지 등
- 해양수산 전문가 초청 포럼·세미나**
- 구매상담회, 해외 수출 상담회, 기술 시연회 등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사무국

문의 | 053.601-5256

자세히 알아보기

박경귀아산시장, '캠핑데이' 참여..“지역의 다양한 공간,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 공간' 활용 필요”강조

19일, 배방 호서대에서 개최...올해 새 번째 '공감Talk' 열어

박경귀 아산시장이 19일 배방읍 소재 호서대학교에 추진하는 '캠핑데이' 행사장을 찾아 지역주민들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이색적인 세 번째 '공감톡'을 추진했다.

'캠핑데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호서대에서 주관하는 대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캠핑 행사로, 이날 호서대 학생과 지역주민 총 80팀 약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1박2일로 진행됐다.

주요 행사로는 참가자들이 자체 준비해온 캠핑 식사 자리와 함께 호서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의 공연과 게임, 참가자 장기자랑, 영화상영 순으로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 시장은 캠핑데이 참여자들과 함께 식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의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박 시장은 "지역 대학교를 캠핑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즐기는 것은 좋은 모델"이라고 말하면서, "지역 대학을 캠핑장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한 것처럼 지역에 있



는 다양한 공간들을 공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내 대학과 기업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통해 시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열린 시정을 통해 시민들과 대화하며 새롭고 신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이상호 태백시장,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참석

“폐광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 아끼지 않을 것”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19일 영월군에서 개최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폐광지역 공동발전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 창립했으며, 태백, 삼척 등 전국 7개 폐광지역의 시장·군수로 구성됐다.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보령시, 화성군, 문경시)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폐광지역진흥지구 확대 및 조정, 폐쇄법 현대화 추진, 폐기금 소송 대응 등 주요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폐광지역 공동발전 및 경제활성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다음 달 화순 광업소를 시작으로,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까지 폐광이 목전에 있다"라며, "현재까지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광산근로자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폐광과 동시에 광해복구 추진으로 일자리를 연계하고, 지역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광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폐광지역의 공동현안 논의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근/기자

청주시, 초정행궁에서 맛보는 왕의 여름 수라상

오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초정행궁 수라간 전통음식감상회 열려

청주시는 오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초정행궁 수라간 전통음식감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식감상회는 세종대왕이 치유와 한글창제 마무리를 위해 방문했던 초정행궁을 알리고 청주시 지역 음식문화 기록유산인 '반찬등숙'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발굴해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자 시작하게 됐다.

음식감상회 구성은 궁중에서 임금이 무더운 여름을 나기위해 먹었던 보양식과 일상식을 바탕으로 전통을 가미한 현대적 상차림으로 구성됐다.

오미소를 넣어 만든 만두 규아상과 고간장으로 꾸민 '식전음식', 여름철 궁중 보양식 민어구이, 전복을 넣은 김치와 문어 초무침, 어주를 곁들인 '주안상', 삼채소와 부리밥, 절미 된장조식, 별찬으로 구성된 '반상',

계절과일과 경단 산사나무 열매를 우려 만든 화채로 차린 '다과상' 등 총 4코스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시식 체험을 할 수 있다.

행사는 매주 토요일·일요일 초정행궁 수라간에서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두 차례 진행되며 1회 참여 인원은 10명이다.

충북유형문화재 제381호 '반찬등숙'은 1913년 청주 상신리 진주강씨 집안의 며느리에 의해 한글체로 쓰인 조리서로 청주시역 양반가의 음식 만드는 방법이 기록돼 당시의 식문화는 물론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100여 년 전 청주지역의 풍속과 언어, 역사,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높은 귀중한 자료이다.

고정화/기자

2023년 전통음식감상회
왕의 여름 수라상
 2023 Korean Traditional Food Appreciation event
The Kings Summer Lunch Table

한국음식의 영수라고 할 수 있는 궁중음식, 임금상을 위한 수라상은 각 지역에서 진상된 식재료와 오랜 기간 숙련된 조리기술로 성채되어 완성된다. 임금님께서 푸릇 푸릇을 즐기셨던 보양식과 일상식을 바탕으로 전통을 가미한 현대적인 상차림으로 재구성하였다.

Speaking of Joseon Dynasty and royalties, Gung-jeong-seumsik, the palace food, which can be said to be the epitome of Korean food and its serving, the King's dining table, was prepared with ingredients produced locally and nation-wide as well as cooking techniques inherited over ages. The kings consumed two types of meals to cope with the heat of the summer of Korea: 1) Bo-pyang-sik, a meal type that adds stamina and strength, 2) Ji-beul-sik, a rather plain one. With these in mind, redesigned in today's course meal of the contemporary table setting while also following traditions.

18시 초정행궁 수라간
 1시간 2023. 5. 27-6. 25 목요일
 1시간 1부 11:30 2부 13:00 11월/28일
 1명당 1인 2만원(내복)
 1명당 010-3050-5009
 주최: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충청남도청

주의사항
 * 1인 최대 4인
 * 선착순 선입금제 우선
 * 12세 이하 참가 불가
 * 09-16시까지 예약 진행
 * 주말 예약 불가

동해시, 6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동해시가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8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는 공중, 대응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017년에 이어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실적을 올

렸다.

재난평가 결과에 의하면, 재난관리리금 관리실적, 전년도 재난안전관리 미흡사항 개선 등의 공통분야, 재난 대응 실무반의 편성, 역할 분장, 숙지도,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역량 등의 대응분야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비교대상군 중 상위 20%에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보통등급을 받은 예방, 대비, 복구분야에서 대하여는 분석

및 보안을 통해 향후 평가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중 안전과장은 "동해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산불, 태풍 등 각종 재난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재난 역량을 키워왔고, 이는 재난관리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부족한 분야는 개선 노력 보완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천안시, 충청남도 및 시·군 토목직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개최

20일 천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정기총회 및 화합행사 진행



'충청남도 및 시·군 토목직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가 지난 20일 천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됐다.

1999년부터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됐던 토목직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었으나 올해 재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남도 및 시·군 토목직 공무원 800여 명이 참여하고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충청남도 토목직 공무원 친목회의 정기총회로 시작됐으며, 이어서 족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3개 종목 8개 팀으로 구성된 화합행사가 진행됐다.

박상돈 시장은 환영사에서 "충남 지역 발전의 근간이자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한마음 다짐대회를 통해 업무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과 책임감을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되는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에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기대하며, 주변에도 널리 홍보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총회회는 공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옥천군 일손지원 기동대, 일손 부족 농가에 큰 힘

충북 옥천군은 관내 취약계층 농가 등의 일손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일손지원 기동대'(구(舊) 일손 긴급지원반)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예산 1억 3200만원을 투입해 4월부터 11월 말까지 2개조 총 6명으로 일손지원 기동대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재난·재해와 부상·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22년에는 재난·재해농가 1개소, 소농 58개소, 여성·장애인 농가 37개소, 소기업 1개소 등 총 97개소에 881명을 지원했다.

2023년에는(4월말 기준) 소농 24개소, 여성·장애인 농가 41개소 등 36개소에 112명을 지원했다.

특히 청성면에서 호두를 짓는 농가 A씨는 남편의 수술로 혼자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일손지원 기동대의 지원으로 퇴비주기 작업을 적기에 하여 큰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군서면에서 홀로 고추밭과 고구마밭을 가꾸는 B씨는 고구마와 고추 심을 시기가 다가오는데 혼자서는 도무지 무리여서 선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손

지원 기동대가 도와줘 농가에 쌓여만 있던 일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다.

농가주 B씨는 "혼자서 밭에 작물을 심으려니 막막했는데, 일손지원 기동대가 지원해주어 일손이 필요했던 작업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열심히 일을 도와준 일손지원 기동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일손지원 기동대 사업은 여성농가, 75세 이상의 고령농가, 장애인 농가 등 취약계층 농가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농(성장가능), 소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고정화/기자

개관 11주년 다누리아쿠아리움, 기념 행사 추진

국내 최대 규모의 민물고기 생태관 단양다누리아쿠아리움이 개관 11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획이벤트와 판타스틱 매직쇼(마술쇼), 매직&별룬아트, 아쿠아리스트 먹이주기 시연, 포토타입 등이 마련됐다.

판타스틱 매직쇼는 오전 11시, 매직&별룬아트는 오후 1시 4D체험관 대기실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아쿠아리스트 먹이주기 시연 및 포토타입은 27일 오후 3시 메인수조 앞에서 진행돼 방문객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달생태 설명회 및 퀴즈 이벤트는 오후 3시 야외 전시관 수달존에서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해 수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양다누리아쿠아리움은 2012년 5월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300만 명이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관광 1번지 단양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다누리아쿠아리움은 2012년 건축 전체면적 1만4397㎡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다누리센터 내 별별스토리관, 다누리도서관, 4차원(4D) 체험관 등으로 구성됐다.

크고 작은 수조 118개에는 단양강 토종물고기를 비롯해 아미존, 메콩강 등 세계 각지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 등 모두 234종 2만3,000여 마리가 전시돼 있다.

남한강 귀족인 천연기념물 황쏘가리와 중국에서 건강과 행운을 불러온다의 최고 보호종 홍룡을 비롯하여 아마존 회고 피라루크 등 해외 민



물고기도 볼 수 있다.

돼지코거북, 알비노 필가오리, 모오케 등 34종 168마리의 희귀생물과 양서파충류관, 수달전시관 등도 관람할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각 전시 수조마다 물고기의 생태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적어 놓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단양팔경 중 하나인 석문을 배경으로 높이 8m, 수량 650t

메인 수조 철갑상어 식사 모습을 보여주는 이벤트도 구경할 수 있다.

또한 '이달의 물고기' 사진 콘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이달의 물고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인증하고 글을 남기면 대상자 10명을 선정해 다누리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표기동 군 체육-레저 과장은 "다누리아쿠아리움이 개관 11주년을 무사히 맞이하게 된 것은 모두가 관심을 찾아주시는 덕분이다"면서 "관객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다누리아쿠아리움은 올해 초 진행된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서 97%가 매우 만족하고

재방문과 추천 의향도 94%로 답할 정도로 소비자 만족도 높은 관광 시설이다.

최만식/기자

2023 경상북도교육청 발명&메이커 축제 개막

발명메카에서 상상을 땀글다!

경북교육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이 주관하는 '2023 경상북도교육청 발명&메이커 축제'가 19일 발명체험교육관 야외광장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축제는 '발명메카에서 상상을 땀글다'라는 슬로건으로 발명과 메이커가 만난 첫 융합 축제다.

축제 첫날 도내 15개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1,300여 명이 발명체험교육관을 찾아 총 65개의 체험 및 전시를 즐겼다.

특히 이번 축제는 발명과 메이커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디자인하고 결과물을 전시하는 것에 중점을 둔 '채움코스', 3D와 VR 등 기술적 요소에 중점을 둔 '키움코스' 특히 경쟁-

자체 제작 체험에 중점을 둔 '채움코스' 총 3개의 코스로 운영된다.

또한 40가지 발명 원리를 적용한 아이디어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발명 아이디어톤' 대회도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발명 아이디어톤'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생은 "담임선생님, 친구들과 경주에서 새로운 대회에 참여하고 이틀간 축제를 즐기며 멋진 추억을 만들었다"고 설레는 소감을 전했다.

체험 및 전시 부스 외에도 현장 참여형 부스로 열리는 토너먼트식 미니사구대회는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생동감 넘치는 레이싱 경기로 축제의 열기를 높여

주었으며, 걸어다니며 측석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카메라 인형은 축제를 찾아온 학생들에게 발명&메이커 축제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 주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발명과 메이커가 만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축제를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가 학생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발명&메이커 축제는 19일 시작해 2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모든 체험비는 무료로 발명과 메이커에 관심 있는 많은 가족들은 주말을 이용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의성교육지원청, 2023년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경상북도 의성교육지원청은 5월 19일 10시에 2023년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관내 학교장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에 따라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별도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가 됨에 따라 2023년에 1차로 학교장 대상으로 우선 교육이 실시됐다.

의성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의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 대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고위직 별도로 대면 교육이 원칙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 고위직에 의한 4대 폭-



력 예방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김성완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각 기관의 최고의 고위직들이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작은 실수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금자기자

경북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문학·예술·역사가 어우러진 인문학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18일~19일 양일간 서울 예술의 전당 일일에서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 융합독서교육 운영교, 독서·인문학 관련 컨설팅단 등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문학 특강에서 유성호 교수(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현대사로 보는 사랑과 행복의 인문학'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인문학은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탐색하는 학문이며, 행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공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후적 특권이며 그것이 곧 인문학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가람미술관의 전시와 서울서예박물관의 '한글, 나랏말씀이 세계로 나르샤' 전시를 관람하며 한



글의 세계성과 한국 문화의 예술성을 한글서예 장르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롯데콘서트홀 음악회 '오페라의 왕과 여왕들'을 관람하고, 해설이 있는 궁궐이야기를 들으며 경북공을 관람하는 등 문화 예술과 역사가 어우러진 인문학 연수를 실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문학·예술·역사가 어우러진 연수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이를 교육과정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교육지원청] 2023 신규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은 5월 19일~20일(1박 2일) 국립소백산생태탐방원에서 2023년 초등학교 신규교사 26명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한 신규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직무연수는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시범교육지원청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봉화교육지원청이 협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신규교사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 규정 및 공문서 작성법을 비롯하여 학급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방법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 1일 차는 ▲ 교사의 자질과 마음가짐 ▲ 복무 규정 및 공문서 작성법 ▲ 선배교사와 신규교사 멘토링, 2일 차는 ▲ 스파티필름과 함께 하는 선생님의 세심한 사랑 ▲ 학교



폭력예방교육 ▲ 연수 만족도 조사 및 수료식 순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실습 체험형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신규교사 간에 친목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분임별로 장학사 및 선배교사가 신규교사 멘토링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어렵고 궁금한 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직무연수에 참여한 신규교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태영 교육장은 "이번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동료교사와 함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협력하는 교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신규교사들이 멋진 스승의 길을 가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학교폭력 예방은 적극적으로! 사안 처리는 신속, 정확하게!

경상북도 봉화교육지원청은 2023. 5. 17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 24명을 대상으로 하여 2023학년도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기획했다. 이를 위해 사안 처리 방법,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내용 삭제에 대한 변경 사항,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안내했다. 봉화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연수를 포함해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공간 및 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학생·학부모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향 봉화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명호 교육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모든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및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사안 처리 방법을 익혀야 할 것이

다. 이를 통하여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며,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정금자기자

임태희 교육감 "에듀테크 활용으로 교육 생태계 달라져, 새로운 길 함께 해달라"

에듀테크 교육 실천 사례 공유하는 '그림&드림 수업 콘서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열린 '그림&드림 수업 콘서트'에서 에듀테크 활용으로 교육 생태계가 달라질 것이라며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교육을 강조했다.

이번 콘서트는 학교급과 교과 특성에 적합한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맞춤형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초·중등 교원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림&드림 수업 콘서트'는 학교급과 교과에 적합한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그려보다'라는 '그림'(그리다, Catch a glimpse),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에 희망을 '담아보자'라는 '드림'(드리다, Dream) 의미를 담고 있다.

수업 콘서트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 방안을 찾기 위해 ▲에듀테크 활용 교육 알아볼! - 톡(Talk)! 톡(Talk)! 콘서트 ▲에듀테크 활용 교육 그려볼! - 초·중등 교수·학습 사례 나눔 ▲에듀테크 활용 교육 꿈꿔볼! - 이해와 실천을 위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 알아볼!'에서는 교육감과 현장 교사 4명이 에듀테크 활용 교육 방향, 현장의 변화 등 에듀테크 교육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이어 교원들은 초·중등 학교급과 5개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별 10개 소그룹에서 교수·학습 사례를 나누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 그려볼!'에 참여했다.

특히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에듀테



크 활용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 10명이 다양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참여 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교육 활성화 방안과 현상이 꿈꾸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사들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이런 기회가 현장의 수업 실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에듀테크 활용 교육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하며 새로운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AI 교수·학습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현장 교사들이 다양한 콘텐츠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제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에듀테크 활용으로 교육 생태계가 달라질 것"이라며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 코칭, 좋은 콘텐츠 공유로 교실 생태계를 바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6월 10일 남부신청사에서 남부 권역 교사 대상으로 '그림&드림 수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오산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부모와 교육 현안 소통 정담회 연다

오산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초·중고 찾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정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이번 소통 정담회는 5월 19일 운산초를 시작으로 7월까지 이어지며 관내 42개 초·중고 교원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오산시 미래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자

자체, 교육청, 학교 간의 협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관재 오산시장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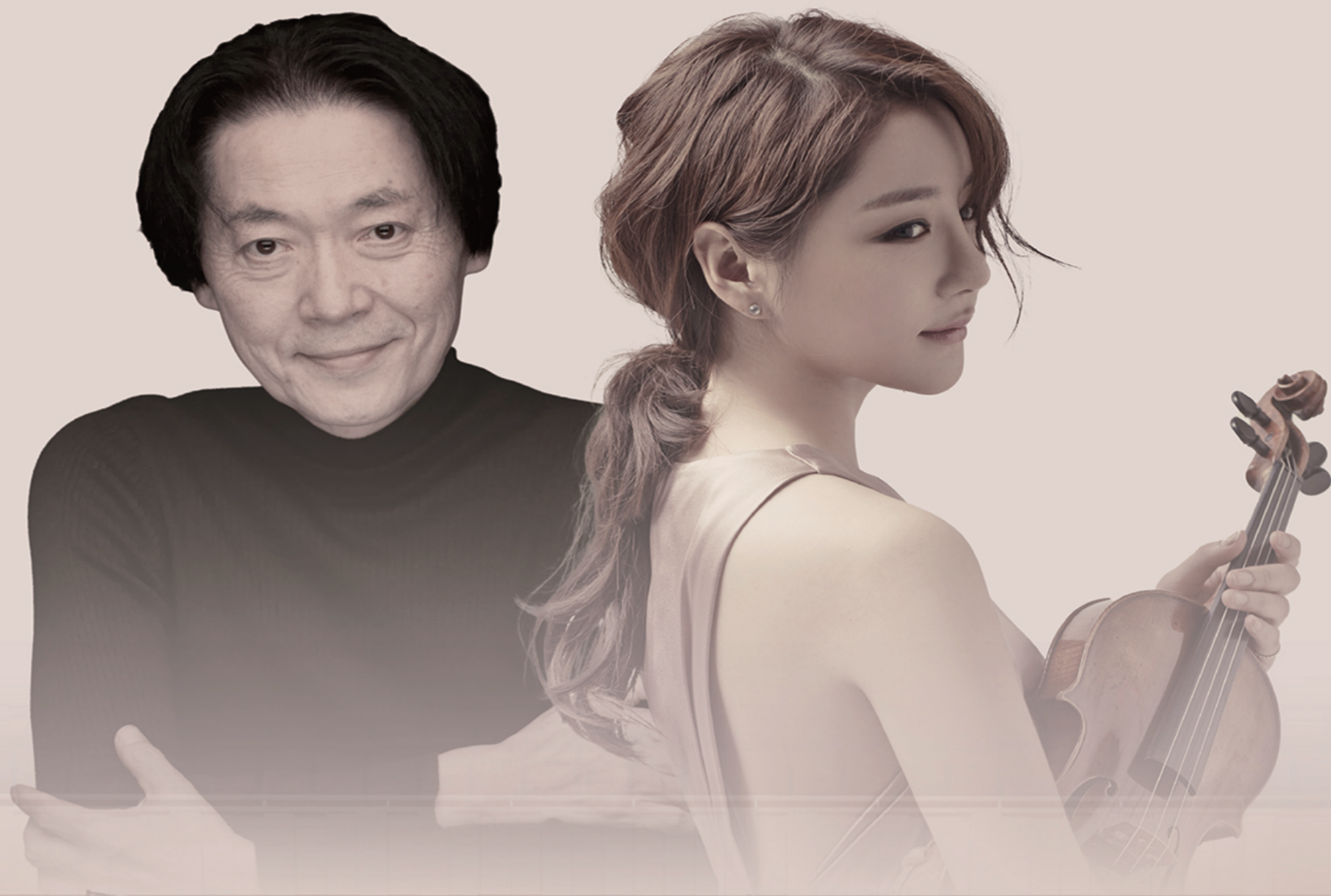
이관재 오산시장은 "이번 정담회는 학부모와 협력하여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며,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양시현기자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산시 미래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정담회는 교원, 학부모,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다"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교육정책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정 치 용 × 신 지 아 × 경 북 도 립 교 향 악 단





경상북도도립교향악단 X 경주문화재단 특별기획공연

제 175 회 정기 연주회

CHUNG CHIYONG & SHIN ZIA

and
Gyeongbuk Philharmonic Orchestra

2023.5.25.Thur 19:30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

주최  경상북도 | 주관 경상북도도립교향악단  (재)경주문화재단 | 예매 티켓링크 1588-7890 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 | 문의 1588-4925

티켓 R석 3만, S석 2만 시야제한석 1만(경북도민할인 50%) 초등학생이상 관람